



# 협회소식

## 본회, 돼지오제스키병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건의

-종돈과 함께 F<sub>1</sub> 모돈도 비육돈과 차등 보상-

본회는 지난 3월 8일 돼지오제스키병이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용인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피해가 크게 우려됨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돈군의 10% 감염시 연간 약 300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지적, 종돈과 마찬가지로 F<sub>1</sub> 모돈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 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를 통해 영세한 중소규모 농장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할 경우 양성돈의 살처분으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어 사회보장차원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건의서에서 3원 또는 4원 교잡종 비육돈을 생산하는 PS(부모돈)은 1대 교잡종인 F<sub>1</sub> 모돈이 대부분이고, F<sub>1</sub> 모돈은 현행 혈통등록 규정상 혈통등록은 될 수 없으나 혈통등록된 종돈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모돈 1두를 만드는 데는 4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현지 평가위원의 평가액에 따라 종돈과 마찬가지로 F<sub>1</sub> 모돈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본회는 전국 도축장과 종돈장 등에 대한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여 양돈농가의 방역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본회, 제 1차 자조금제도추진위원회의 개최

본회 자조금제도추진위원회(위원장: 성정표)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문승현, 남창수, 류영빈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자조금제도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자조금제도추진위는 △ 사육두수 현황 현실화 파악 △ 동의서 취합방안 △ 공청회 개최 △ 법률안 제정 및 법제화 추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조기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자조금제도추진위의 계획안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동의서 취합을 완료한 후, 8월쯤 공청회 개최 및 각계 의견을 파악·정리하여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300만두를 목표로 정하고 시·군별 총 사육두수의 60% 이상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매월 취합실적을 각 지부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위원 7명은 각 도별 동의서 취합 책임제를 실시하여 미제출 지부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영한 전무이사는 회의에 앞서 자조금제도 추

진현황 및 동의서 취합 실적을 보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주간양돈정보 20면으로 증면 발행 및 3종우편물 나급인가

본회는 양돈농가들에게 보다 폭넓은 국내외 양돈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주간양돈정보를 3월 20일 자부터 기존 4면에서 20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있다.

증면 발행한 주간양돈정보에는 ▲ 축산정책 ▲ 해외 축산뉴스 ▲ 국내양돈뉴스 ▲ 축산물 가격 ▲ 협회뉴스 ▲ 업계뉴스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최초 증면발행된 주간양돈정보에는 퓨리나코리아, (주)동방, 은성축산, 우석종돈, (주)한국양돈진흥사업회가 광고를 게재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3월 23일 주간양돈정보를 3종우편물 나급 인가를 받았다.

이로서 본회는 주간양돈정보 발송비를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

양돈정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발행되며 양돈정보를 받지 못하는 회원은 지부 또는 중앙회로 연락하면 된다.

#### ○ 본회 질의에 대한 환경청 회신 내용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돈분은 유기질 비료로 인근 과수원이나 시설원예업자 및 특수작물 재배업자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계약판매 처리할 경우 적절한 제반처리 절차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돈분은 일반 산업폐기물 중 동물의 분뇨에 해당되므로, 이것을 위탁처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신고자 및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재생·이용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이 경우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여야 함)하여 소각 또는 매립 등을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분뇨를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찌꺼기로 남은 오니류(슬러지)를 건조할 경우 비료관리법에서는 부산물비료(분뇨잔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돈장에서 슬러지의 처리도 가능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니류 등 산업폐기물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것(비료관리법상의 부산물비료 등)은 산업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비료관리법 등의 관리대상임.</li> </ul>

### 본회, 검정전문요원 연수교육 실시

본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동안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서 검정전문요원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농장검정요원 및 등록희망 양돈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교육 희망자는 공인 종돈능력검정소(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이치 2리 산 83번지, 전화 : (0336) : 32-2426·2860)에 접수하면 된다.

### 제55차 검정돈 경매 성료

제55차 검정돈 경매가 지난 3월 20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서 있었다.

등록 14두, 대요크셔 23두, 햄프셔 1두, 랜드레이스 16두 등 총 54두가 상장된 이날 경매에서는 25명의 응찰자가 경합을 벌여 50두가 낙찰되는 상황을 이루었다.

### 환경청, 돈분처리방법에 대한 회신 보내와

환경청은 지난 3월 22일 본회가 질의한 돈분처리방법 등에 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 경남도협의회 지부장 간담회 개최



경남도 협의회(회장 : 신태식)는 지난 3월 27일 창원 호성식당에서 돼지고기 및 두, 내장 요리 강습 및 시식회를 끝내고 전동용 회장, 최상백 부회장, 신태식 경남도협의회장 등 지부장, 부지부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동용 회장은「양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의과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조금제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가였으며, 성정표 자조금제도 추진위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론 재무장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도협의회 지부장간담회에서는 자조금제도의 실현뿐 아니라 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돼지고기 수출 활성화 등에 전력을 다해 양돈산업 발전에 전력투구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경기도협의회회의 개최

경기도협의회(회장 : 이명복)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2시 양돈회관 5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각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양돈업계의 현안 전반

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개정된 축산법 문제에 대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규제토록 한 것은 모순이 없지만, 등록법은 운영상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당국과 협의하여 규모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구씨의 건강론에 대해서 각 지부장들은 현 시점에서 협회 차원의 건강이론을 제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KBS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채식과 육식에 대한 이론을 재조명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 충남북지부장회의 개최

충남북지부장들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유성경화장에서 충남북지부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양돈업계 전반에 걸쳐 집중 논의했다.

이날 지부장들은 ▲ 양돈폐수 처리문제 ▲ 개정된 축산법(안) 등 현안문제가 산적히 쌓여 있다고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참석하여 최근 개정된 축산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 전남도협의회회의 개최

전남도협의회(회장 : 김태환)는 지난 3월 14일 도협의회실에서 전남도내 각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협의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 제2검정소 건립문제 ▲ 자조금제도의 조기입법문제 ▲ 사료부가세 면제방안 ▲ 이상구박사의 건강론 등 최근 양돈업계의 당면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협회에서 양돈농가의 현실문제를 파악,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박멸의지를 제시해 주고, 전양성돈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참석하여 제2검정소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제2검정소가 원활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전남도 각 지부장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천지부, 돼지오제스키병 살처분 보상금 20% 지급키로

지부내에 돼지오제스키병대책위원회 두기로

이천지부(지부장 : 박용각)는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지부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돼지오제스키병대책위원회를 구성·발족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89년도 사업계획중 방역사업을 추가키로 확정된 것은 이천지역에도 오제스키병이 만연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양돈농가의 조기신고 및 자체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천군 전지역은 물론 인접 군지역의 경우 회원이 거주하는 자연부락단위로 하여 전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홍보계몽 및 검역확인을 하고, 양성돈이 판명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를 지부조성 기금으로 추가보상키로 결정했다.

또한, 관할 구역내에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부분보

상의 경우 총액 5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지부기금 한도 내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의 규정은 1년으로 하고, 연간 회원 두당 100원씩 거출하여 기금을 조성하되 비회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김해지부, KBS에 사과방송 요구

김해지부(지부장 : 강복균)는 지난 3월 9일 지부회의실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구식 건강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상구씨의 건강론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류소비량이 미비한 수준에서 비취 불 때 상식밖의 주장」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반박이론을 정립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이상구씨의 프로를 방영한 KBS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해지부는 결의문에서 골든타임 시간에 심야토론 프로와 유사한 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대대적인 KBS 성토시위 등 실행사를 벌일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강복균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돈육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구씨의 건강론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당면문제를 타개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 청주청원지부, 이상구식 건강론에 대한 대책논의

청주청원지부(지부장 : 김철수)는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구식 건강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상구식 건강론으로 인해 돈육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이 하락했다고 지적, KBS에 공정보도 및 대응프로그가 방영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한편, 회원들은 ▲ 돼지오제스키병 ▲ 돼지 공동출하 ▲ 지부조직 강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돼지 오제스키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지부 차원에서 공동방역 작업을 실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정주정읍지부, 돼지공동출하 방안논의

지난 1월 20일 본회 '89년 제1차 이사회의에서 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정주정읍지부(지부장 : 김영범)가 최근 월례모임을 갖고, 돼지공동출하 방안 등 지부공동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 돼지 유통체계상 도축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부의 공동문제 해결은 사육두수에 따른 판로개척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회원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사료구입 등을 지부차원에서 공동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정희완 지도부장이 참석하여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월례모임이 끝난 후 선진사료(주) 질병팀(장성용과장, 황윤재 수의사)이 「돼지오제스키 질병과 방역대책」에 대해 강의를 했다.

### 아산지부, 돼지오제스키병 박멸대책 논의

아산지부(지부장 : 이문상)는 지난 3월 25일 지부회

의실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오제스키병 박멸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돼지오제스키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가급적 청정농장에서 종돈을 구입하고, 농장상호간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월례모임이 끝난후 한국바이엘화학 예재길 차장이 참석, 「돼지의 사양관리 및 질병예방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 ■ 협회 단신 ■

### 구례지부 신규직원 채용



이경숙 양

구례지부(지부장 : 임승환)는 지난 3월 순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경숙양(19세)을 신규 채용했다.

### 본회 및 이천지부 팩시밀리 설치

▲ 중앙회 : (02) 552-6537

▲ 김정소 : (0336) : 32-2860(전화도 가능)

▲ 이천지부 : (0336) : 33-4121(전화도 가능)

